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45.27 (-9.31)	773.33 (-1.3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610 (-0.008)	1427.10 (-7.20)



주총 화두 ‘미래 경쟁력’... 반도체·IT 전문가 전진배치

산업계 주총, 사외이사 선임 주목
삼성전자·현대차 기술경영 속도
반도체·ICT 등 전문가 대거 영입
포스코·LG도 인재 중용 잇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체·IT분야의 전문가를 사내외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추세이다.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중용해 회사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통상 전쟁 등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중장기 포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사외이사 라인업이다.

삼성전자는 내달 19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선임한다.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이 최근 내정됐다. 지난해 5월 반도체 수장으로 투입된 전 부회장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데 중

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반도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중심의 경영에 속도를 높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과 함께 자율주행 시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내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재선임 후보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제외한 4명은 신규 후보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진은숙 현대차 ICT 본부장(부사장)이 올랐으며 도진명 전 쉐컴 아시아 부회장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ICT와 반도체 전문가로 이사회 구성을 강화한 것이다. 진 부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1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지난해 5월부터 ICT를 담당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장재훈 부회장은 현대차 사내이사에서 물러나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정 회장은 올해부터 기아에서 보수를 받는 것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기아가 내달 정기 주주총회



외화예금 1034억 달러... 13개월 만에 최대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은 한 달 전보다 21억4000만 달러 증가한 103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4년 12월 잔액(1038억8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뉴시스

에서 정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추천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정비 공매도 소송목 전면재개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공매도 과열종목요건 한시 완화
은행 대출, 기준금리 반영 할 때

“공매도 시스템을 1년 넘게 정비한 만큼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할 이유는 없다. 대외 신인도 측면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통상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됐고, 2021년 5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

비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봤을 때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과거라면 (지정요건에) 적용이 안됐을 종목들도 일정 기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더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3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은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종목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경우 등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하폭 반영해야
이날 김 위원장은 여전히 높은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해 이제는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금리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법사위, 거대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추진

여당·재계 반대 속 개정안 심사
야당 표결만으로 강행 처리 가능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법제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

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권 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이재명 “상속세 토론”, 여당 “일대일 끝장 토론 하자”
▲ 최상목 대행 “재생에너지 투자 지속... 원전 기술 확보 지원”
/사진 뉴시스

▲ 탄핵 최후변론 D-1...尹, ‘진술 요지’ 정리 vs 국회측, ‘핵심 증거’ 서면 제시
▲ 與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논의중”

▲ 공수처 항의 방문한 與... 나경원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 민주당, ‘홍준표 복당 개입’ 명태균 녹취 또 공개... “하루 다섯번씩 전화 와”

높아진 美 관세장벽에… 14억 中 시장으로 눈 돌리는 K-식품

삼양식품·대상 등 전량수출 의존 관세부과 현실화면 수익성에 타격

中 통화정책 완화, 한한령 해제 예고 식료품·생필품 기업들 수혜 전망 삼양식품 중국 법인, 2027년 완공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이를 기회 삼아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예외주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식품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한국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매출 비중이 큰 식품기업들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 1위 국가다. 지난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15억 887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대미 수출 품목 1위는 라면이며 각종 음료와 베이커리 제품, 김치 등도 뒤를 이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판매가를 올리게 되면 미국 내에서



챗gpt가 생성한 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 이미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판매가를 동결하게 되면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삼양식품의 경우 라면 제품을 현지 공장이 아닌 전량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썸범이 복잡하다. 대상 증가도 김치 수출 주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포함 국가나 품목, 시기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지 생산 라인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과

가 현실화되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푸드, 美→中 무게 중심 이동

국내 식품업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해외 시장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인구 14억명의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2022년 21억9703만 달러 ▲2023년 20억4615만 달러 ▲2024년(11월까지) 18

억6334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업계는 올해부터 중국 매출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실시로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생활 필수재 부문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오리온은 올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 제품 위주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식 트렌드에 맞춰 식물성 육포와 오트키 등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중국 내 영업체제를 '간접 영업체제'로 전환해 영도가 넓은 중국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삼양식품도 중국 시장을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외 매출 중 중국 비중이 25%에 달하는 만큼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삼양식품 싱가포르 유한회사(가칭)를 설립하고 647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오는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중국 자싱시에 생산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공장은 중국 내수 전담 생산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빙그레는 올해 중국 시장 내 냉동 제

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박람회 등을 통해 중국 내륙 지역 소비자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빙그레 전체 매출에서 중국 법인 매출 비중은 2.8%다. 다만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규모는 109억원으로 1년 새 25.3% 성장했다.

◆한한령 해제에 기대감

이르면 5월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식품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한령은 2017년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도입된 이후 8년간 유지됐다. 이로 인해 롯데웰푸드는 상하이와 베이징 공장을 매각해야 했고, CJ제일제당·풀무원·오리온·농심 등 주요 식품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K-푸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과거에도 해제 가능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한령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서 K-푸드의 인지도를 활용한 현지화 전략을 펼쳐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1면 '주춤서 미래 준비하는...서 계속

임단협 갈등 최고조… 현대제철 '부분 직장폐쇄'

노조 게릴라 파업에 사측서 중단 이달 냉연 생산손실 254억 추정 美 25% 관세폭탄 등 리스크 겹쳐

현대제철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사분규로 직장폐쇄사태까지 겹치며 내외의 환의 이종고에 빠졌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외부 위협 요인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요 수요일업의 침체와 노조리스크까지 다중으로 겹치며 충격이 더해진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4일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설비 일부(PL/TCM)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현대제철 노조가 과도한 성

급 요구와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자 결국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제철소 설비 일부의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피해금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설비는 냉연강관 생산에 앞서 소재인 열연강관의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전 압연을 하는 장비다. 냉연생산 라인의 선공정으로, 이 설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소재 고갈로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현대제철은 당진냉연지회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냉연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직장 부분 폐쇄를 선택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과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진행됐다.

지난 1일~22일까지의 노사분규로

냉연 부문에서 발생한 생산 손실은 27만톤으로 추정된다. 손실액은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의 글로벌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 현대제철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보복관세와 중국의 과잉철강 덩핑 수출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세계 철강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집안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임단협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교섭을 마무리짓기 위해 경영 성과금과 독려금,

생활안정 지원금과 더불어 기본급 400%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대제철은 해당 안을 지급할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해 650억원 적자로 수정 공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48시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금 지급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 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이현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가계대출 등 지방으로 자금공급"

>> 1면 '불공정거래 적발...서 계속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은 분양가가 높고,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 문제는 금융을 풀어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만 예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달라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 "DSR 규제를 어렵게 정착시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할 경우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는 아

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비중을 지방에 더 쏠리게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며 "어차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의 움직임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MG손보 매각, 협상 늦어져선 안돼'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 협의는 양측이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

보험을 매각할 최종 우선 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했고 이에 노조는 반발한 상황이다. 매각이 불발돼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하면 약 124만명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G전자

'안정 속 혁신'에 초점 강성춘 사외이사 내정

이 본부장은 전략분야 전문가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 및 중점 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연구원장은 철강연구 전문성과 AI를 활용한 공정 자동화 등 폭넓은 신기술 연구 경험을 토대로 그룹 기술 개발 체계 고도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안정 속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전자는 내달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사와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LG전자는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 강성춘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에 내정했다. 강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 미국 코넬대 인적자원관리 박사를 나왔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위원,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이번 주총에서 현재 사내이사 세명 중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된 ㈜LG 부회장인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인 류충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각각 이사로 재선임한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톱(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소득대체율 등 갈등 고조 與野 ‘무제한 토론’ 맞붙

연금개혁

모수·구조개혁 등 견해차 확인 與, 토론 제안...野 “속히 진행”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쟁점이 소득대체율, 협의제, 구조개혁으로 확대된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회’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보건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무회의에서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교착 국면에 진입했다. 현재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특위 출범 ▲구조개혁 추진 등이다.

야당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44~45%까지 높이고, 구조개혁은 별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가 현행 보험료율(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에 합의를 이룬 만큼,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소득대체율의 마지노선으로 43%를 제시했다. 또한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만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연금특위’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모수개혁안을 2월 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조개혁도 시급하지만,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한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연금개혁 단독 처리는 유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을 하나의 당이 강행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연금개혁이라는 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너무 중요한 일인 만큼, 합의를 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에 연금개혁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아우르는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했던 만큼,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역제안한 것.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와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를 못 본 국민연금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라며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게 맞는 만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 3대3 토론회를 진행하자”라고 맞섰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재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자본시장법부터 바뀌어야”

상법 개정

‘핀셋 규제’ 통한 효율적인 대응 강조 “투기자본 공격 등 리스크 높아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를 앞세워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인 불공정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도 민주당의 입장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 상법 개정만큼 소액주주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공감하지만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재계다. 경영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선불리 논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할 경우 ▲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신사업 진출 저하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확대 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 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핀셋 규제’를 도입해 주주보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안정성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투자, M&A 등으로 불이익 받았다고 판단한 일부 주주들이 배임죄 고발 등을 통해 소송을 남발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기업의 성장 저해와 밸류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본 회의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서나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지난 1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뉴스1

협력하는 연구, 도약하는 포항

창의 융합 혁신 포항
지속가능한 한동대포항캠퍼스

대한민국 미래 의료 혁신을 이끌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의사과학자 양성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국가적 사명입니다

POSTECH 포항시

RESEARCH & DEVELOPMENT

영업부터 데이터·상생까지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앞장



올해 KB국민카드는 김재관 사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김 사장은 그룹 내에서 ‘영업통’으로 평가받는다. 1992년 국민은행 입행 후 기업상품부장, 중소기업고객부장, 기업금융솔루션 본부장, 경영기획그룹대표 부행장 등 영업 일선에서 두루 활약했다. 김 사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영업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객경험관리부를 신설하고 기존 고객전략그룹을 고객영업총괄그룹으로 격상했다. 개인고객그룹은 개인 영업그룹으로, 기업고객그룹과 SOHO·SME본부는 각각 기업영업그룹, SOHO·SME영업본부로 개편했다.

*b KB 국민카드

⑩ 김재관 사장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빠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업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KB국민카드는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상반기 영업 전략을 논의하고 임흥택 작가를 초청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의 원칙조직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김 사장은 조직원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해 영업 속도를 높일겠다는 전략이다. KB국민카드는 영업에 강한 카드사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법인카드 시장에선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 신용판매 잔액 또한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KB국민카드의 법인 신용카드 회원은 45만6000명이다. 법인 회원의 누적 승인금액은 15조8411억원이다.

고객 경험 높여 영업 경쟁력 키워 법인카드 강점 살려 신규 회원 확대 AI·빅데이터로 데이터 사업 본격화

신규 회원 영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매달 신규 회원 14만명을 유지했다. 하반기 합산 신규 회원 수만 놓고 보면 업계 1위다. 카드업계가 차기 먹거리로 데이터 사업을 낙점한 가운데 신규 회원 확보는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

지난해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했다. 이어 고려대학교와 산학 연계 데이

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B국민카드뿐 아니라 KB국민은행의 금융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데이터 구매자에게 꼭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본격적인 플랫폼 사업 확장을 예고한 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이상열 AI데이터사업 그룹장을 전무로 승진시켰다. 이 전무는 지난 2022년 데이터전략그룹장(상무)을 수행한 바 있다. 그간 데이터 사업을 꾸려온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어 이정수 기업·공공영업그룹장 또한 기업 영업그룹장(전무)로 승진했다.

캄보디아 법인 합병, 금융 서비스 확대 해외 실적 반등 노려 디지털 역량 강화 지역·소상공인과 함께 사회공헌 앞장

KB국민카드 관계자는 24일 “신임 사장 취임에 맞춰 차별화된 역량과 고객 경험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 해외 실적 반등 노린다

KB국민카드는 올해 캄보디아 법인 2곳이 인수합병을 승인 받았다.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각각 1곳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해외 법인 4곳은 총 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 121억원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 악화했다.

동남아 국가의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동남아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층의 실업과 소득 감소가 겹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불황 여파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캄보디아 법인의 경우 올해부터 통합 특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캄보디아 상무부가 자회사인 K 대한특수은행(KDSB)과 아이파이낸스리싱(iFL)

간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2018년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한 이래 6년여 만이다. 향후 자동차 할부금융과 함께 리스 상품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캄보디아에 모빌리티 토탈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지급·결제 속도가 빠르게 확산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금융당국 또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 또한 모빌리티 할부금융을 필두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 김재관 사장, 사회공헌 강조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서민 금융지원은 물론 사회공헌활동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는 지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강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천시와 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을 체결했다. 지역에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지역축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점진적으로 문화관광 정책개발을 위해 동행을 이어 가고 있다.

여름 휴가철에는 제주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제주 질그랭이 거점센터와 협업을 통해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한 달여간 제주 세화마을 가맹점과 다량쉬 웰니스 프로그램 현장 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경품으로 ‘해녀 미니 태워’를 제공했다.

김 사장은 “도덕과 원칙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상생금융 실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서민 금융의 중추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KB국민카드가 신규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 Pay

다 되는페이
KB Pay

가입고객
1400만명 돌파

KB국민카드, KB페이 가입고객 1400만명 돌파.

/KB국민카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李, 수도권 중산층 겨냥... '세제 개편·중도보수 정당' 언급

전체 세수서 근로소득세 비중 높아
"초부자는 감세, 월급쟁이 증세 결과"
'스윙보터' 주택 보유·고소득 근로자
세금 이슈 전면화 때 보수 선택 경향
지난 대선 때 극대화... 약점공략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우클릭'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속세 등 세금 이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세제 개편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반도체특별법 등도 함께 토론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최근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완화는 세금 이슈에 민감한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적용해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초부자들은 감세하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 중산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중산층'은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 이후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과 고소득 근로자들은 세금 이슈가 전면화되면 보수정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투표 성향이 극대화된 것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31만여표 적게 받았다. 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수도권 한강벨트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중부세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유권자들의 항의를 들었다는 후일담도 있다. 이들은 세금 이슈에 민감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은 아니다. 스윙보터는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표심도 변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화됐다고 보고, 가장 약한 지점인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보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간 민주당은 세제 개편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 등을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우클릭' 행보를 종합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이다.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부가 증세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니, 감세를 언급하면서 당 정체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드라이브... 尹 부부 공세 강화

법사위 소위서 특검법 심사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목표
尹 파면되면 수사 가능해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도록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오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게이트,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특정한 당선을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연관됐

다는 의혹이 제기된 흥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은 여당의 반발에도 통과시키고, 27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다. 박법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태균씨는 민주당과 특검법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한 바 있으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 현

안질의에서 명씨에게 직접 질문하려 했지만, 명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창원교도소에서의 법사위 현장 현안질의 개최나 화상회의 등을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주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종결일(25일)이 있고, 그 다음 다음날(27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주 법사위는 법안 통과에 바쁘다"며 "그래서 내려갈 틈은 없고, 다음주라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받지 않지만, 만일 파면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특검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권영세 "소상공인 인당 100만원 바우처, 추경 편성 협의 중"

'영세 사업장 현장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이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 사업과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봉제공장 케이대명에서 당 경제협력 민생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영세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할 경우에 장비 구매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생각이 있는데, 그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가 소상공인연합회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정부 측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매출 1억4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에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예산을 지원해서 공과금, 보험비, 판촉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유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사업보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바우처가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돈 25만원을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경제협력민생특위 위원장도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주4일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깊은 비애를 느낀다"며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 노사 협상할 때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민주당에 요청하니까 딱씩 받아서 그들의 편을 든다"며 "공장에서 스팀 다리미로 일하시던 분은 일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희는 정동 보수 정당이 온기가 잘 닿지 않는 경제 기층 부문에 어떻게 하면 온기를 전달하고 밝힐 것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세사업장에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금융 조정, 이자 지원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경제협력민생특위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업체를 현장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10th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급등 조짐 무제한 치료·과잉수리비 ‘구멍’

작년 상반기 車 손해율 2.2%p ↑
경상환자 장기치료 주요 원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대물배상 파트도 손해율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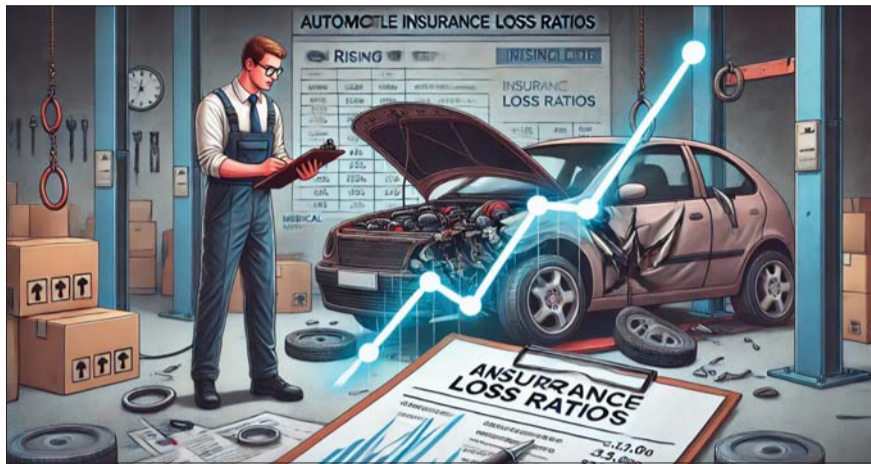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또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상환자가 기한 제한 없이 치료를 받거나 과잉청구로 수리비가 부풀려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p) 높아졌다. 대형 손해보험회사 7곳의 평균 손해율은 작년 7월 82.6%에서 11월 92.7%로 상승했다.

손해를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꼽힌다. 지난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할 경우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진단서를 반복 발급받으면 치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료가 길어지면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의 합의금이 커지고 일부 환자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건강보험으로 남은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환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8300억원에서 2023년 1조29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향후 치료비는동기간 1조1300억원에서 1조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이미지.

4300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했는데 향후치료비가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주로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경상환자가 향후치료비를 보상 받고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수리비가 포함되는 대물배상 파트도 손해율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보험료 증가 속도에 비해 빠른 대물배상 보험금 증가세는 손해율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주로 공임비와 부품비 증가, 수리비 과잉청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리비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정비업계 공임비는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2년 4.2%, 2023년 3.8%,

2024년에는 3.5% 인상이 확정됐다. 부품비 역시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돼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지난 2022년 4조690억원 수준이던 대물 수리비는 2023년 약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일부 정비업체에서 수리비 견적을 부풀리는 ‘수리비 과잉청구’ 관행이 지속되면서 공임비·부품비 인상 폭 이상으로 보험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물배상 보험금은 지난 2018년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과보험료는 동기간 연평균 0.8% 증가에 그쳤다.

전용식 선임연구원은 “대물배상 보험금의 경우 근거가 취약한 공임 결정 방식, 수리비 과잉청구 억제제를 위해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낮은 실효성 등 제도적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LH, 올해 공사·용역발주 19조 ‘역대최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비중 69%
상반기 누적 59% 수준 발주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해 발주 실적 17조8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유형별로는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 등이다.

이번 발주계획에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왕왕속1,2(9969억원) ▲인천계양(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용역 국가산단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투자집행 시기도 앞당긴다. LH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약 12조6000억원(전체 65% 수준)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약 1조2000억원(전체 용역 발주의 90%)을 편성했다.

LH는 역대 최대규모 발주인 만큼 발주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세 제공지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이상징후 검사 시스템’ 도입

연소득 허위 입력 등 데이터 분석
내부통제·선제적 금융 사고 예방

우리은행은 24일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징후 검사시스템)’를 오픈했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에 대해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은 ▲대출 취급시 연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마련됐다.

행동 패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검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되며,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Data Base)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 등을 개발했으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해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새롭게 마련된 검사시스템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을 현업에 도입하게 됐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

서울 금고 ‘양천 금빛’·‘종로 중앙’ 4파전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3파전 7곳 2파전 42곳 등 49곳 경합

새마을금고가 ‘제1회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가운데 서울 일부 금고에선 4명이 몰리면서 각축전이 예상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경합이 이뤄지는 곳은 총 49곳이다.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지원한 곳은 총 7곳이며, 42곳은 2명이 이사장 자리를 경쟁한다. 서울지역 새마을금고 193곳 중 144곳은 단일 후보가 출마하면서 자동으로 이사장에 당선된다.

가장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는 곳은 양천구 금빛새마을금고와 종로구 종로중앙새마을금고다. 각각 이사장 후보로 4명씩 지원했다. 이번 동시 선거에서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 금고는 반드시 직선제를 치뤄야한다. 2곳 모두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이어서 선거일(3월5일)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빛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3826억원이다. 이 중 현금·예치금과 대출채권의 비중은 95.5%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포스터.

/새마을금고중앙회

각각 1518억원, 2134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이어 임직원은 임원 11명과 직원 24명으로 중견 규모 금고로 분류된다.

오보근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연임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이만중 전 금빛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문병상 전 금빛새마을금고 감사,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 이사장과 전임 이사장의 대결이 성사된 셈이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빛새마을금고는 과거 대의원제를 채택할 때부터 수많은 지원자들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라고 말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는 박창훈 이사장이 3연임을 모두 마치면서 새로운 인

물이 도전장을 던진다. 김산해 전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이사사와 이태랑 전 창신2동새마을금고이사장, 이재광 전 종로구의원, 이용희 전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전무 등이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태랑 후보자는 1942년생으로 올해 출사표를 던진 서울지역 후보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반면 최용득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57세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조182억원으로 대형 금고에 속한다. 현금·예치금은 2307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22.6%다. 이어 대출채권 잔액은 7617억원으로 74.8%를 차지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카드 News

KB국민·롯데카드, 캐시백·할인 행사

KB국민카드는 봄방학을 맞아 홍콩과 중국에서 결제 시 포인트리와 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홍콩에서 KB국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50%를 포인트리로 돌려준다. 행사 종료 후 홍콩에서 원화환산금액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 포인트리를 지급하며 홍콩 디즈니랜드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 포인트리를 준다.

오는 4월 9일까지 중국에서 KB국민 유니온페이카드를 이용하면 캐시백을 제공한다. 행사 종료 후 중국에서 원화환산금액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최대 5만원까지 적용한다.

롯데카드는 발견탭 내 ‘새 학기’, ‘교육’ 카테고리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9일까지 디지코앱 평샵에서 ▲노트북·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학생가구 ▲디지털 액세서리 등을 최대 80% 할인한다. 일부 상품은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0% 추가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도서와 스테디카페 이용권, 의류, 화장품 등을 할인해 주는 ‘TOUCH(터치)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선착순 5만명에게 온라인 서점 ‘에스24’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김정산 기자

LGD, 40인치 ‘필러투필러’ 양산 글로벌 SDV 시장 공략 속도낸다

차량 전반 가로지르는 초대형 패널 로컬 디밍 기술 첫 적용... 전력 절감 소니혼다모빌리티 ‘아필라’ 탑재

LG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40인치 ‘필러투필러(Pillar to Pilar, P2P)’를 양산하고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산된 디스플레이는 일본 소니와 혼다가 함께 만드는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인 ‘40인치 필러투필러’를 양산한다고 24일 밝혔다. 필러투필러는 자동차 운전석 앞유리 기둥(필러) 왼쪽 끝에서 조수석 오른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초대형 패널로 이에 차세대 모빌리티용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SDV가 소프트웨어로 차량 성능을 제어하고 운전 편의성을 향상하면서 다양한 기능 조장이 용이한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의 40인치 필러투필러는 소니혼다모빌리티의 첫 전기차인 ‘아필라’에 탑재된다. 아필라의 인공지능(AI) 기반 운전 보조 시스템을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다.

이를 기반으로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가운데 1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3.0%에서 올해 73.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대형 필러투필러 기술은 업계 기술력을 증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설루션 ‘필러투필러(Pillar to pillar, P2P)’를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명한 셈”이라며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기존 패널 대비 엄격한 신뢰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형 필러투필러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디스플레이를 이어 붙이면 작은 틈이 생겨 운전시 물입감을 떨어뜨리기 때문, 이에 LG디스플레이의 대형 필러투필러는 하나의 패널로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면서 그간 한계점을 극복했다.

LG디스플레이의 40인치 필러투필러는 ▲물입감 높은 대형 사이즈 ▲부드럽고 정확한 터치 기능 ▲극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을 내구성을 자랑한다.

구체적으로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제품에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SPM 모드’를 적용했다. 조수석 앞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승자가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해도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

술이다.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의 고화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또 기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공조 시스템이나 음악 감상 기능을 활용할 때는 네비게이션 화면이 안보이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등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40인치 필러투필러를 이용하면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에 개인화·맞춤형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발열이 적고 전력 소비를 절감한 ‘로컬 디밍(Local dimming)’ 기술도 최초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주행 효율을 한층 높였다. 또 터치 가능한 초대형 화면을 통해 각종 기능을 제어해 차량 내 물리적 버튼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미래형 모빌리티 디자인 가능성을 열었다.

또 영하 40도 혹한부터 영상 85도 초고온까지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필수적인 신뢰성과 내구성도 확보한 셈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화학-한샘, 친환경 주방가구 사업 맞손

성형자재 개발 MOU 체결

LG화학이 한샘과 손잡고 친환경 주방가구 소재 시장을 정조준 한다.

LG화학은 지난 21일 한샘 송과점에서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LG화학이 식물성 원료 기반의 고기능성플라스틱 ASA(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 소재를 공급하면 한샘은 주방가구 ‘에끌라(e'clat)’ 표면재로 ASA를 사용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주방가구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SA는 SAN(Styrene Acrylonitrile copolymer)과 아크릴고무로 만들어 고온에 견디는 내열성 외에도 내후성이 우수해 가정용 가구 등에 사용된다. 높은 가공성과 내구성으로 변색이 쉽게 발생하지 않아 주방가구, 불박이장 등에 적합한 소재이다.

상반기 출시 예정인 ‘에끌라’에는 LG화학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LETZEro)’가 적용돼 출시된다.

‘렛제로(LETZero)’는 Let(하게하다, 두다)과 ‘Zero(0)’의 조합어로 LG화학이 지난 2021년 론칭한 친환경 브



지난 21일 LG화학 김스티븐 전무(오른쪽)와 한샘 고영남 연구소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LG화학

랜드로 친환경 제품 영역을 대폭 확대해 오고 있다.

한샘 고영남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가구용 소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시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탄소배출량도 늘어나게 된다”며 “친환경 가구용 성형자재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ABS사업부장 김스티븐 전무는 “한샘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ASA가 가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렛제로(LETZero)의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사장 등 이사후보 추천

정대형 기획지원본부장 등 4명

포스코퓨처엠이 24일 엄기천 사장(사진) 등 4명을 사내외이사 후보로 새로 추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엄 사장과 정대형 기획지원본부장을 신규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엄 사장은 포스코 PosLX(리튬)사업추진반 팀장, 해외법인장(중국·베트남), 철강기획실장, 마케팅전략실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에 선임돼 2차전지소재사업을 이끌어 왔다.

정 본부장은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실장 등 전략분야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포스코퓨처엠 경영기획본부장에 선임돼 회사



재무와 전략 업무를 총괄해 왔다.

포스코퓨처엠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추천했다.

허 후보는 30여년 경력의 경제 및 국제분야 전문가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 국내외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천성래 포스코홀딩스사업시너지본부장이 추천 명단에 올랐다. 천 본부장은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장, 해외법인장(인도)과 포스코홀딩스철강팀장, 탄소중립팀장을 역임했다. 폭넓은 사업경험과 소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포스코퓨처엠의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기자

조선·해운 패권경쟁 심화... 시장 재편 가능성

美, 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추진 운송비용 영향... 韓 반사이익 기대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시장재편 기대감을 키우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톤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는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달러(약 21억 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마련됐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 최소 기준 비율은 조치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 5%, 7년 후 15%까지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 뒤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내달 24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USTR의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선박이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면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일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강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신규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해군의 함정 건조 및 수리·보수 등 분야에서 한국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은 지난 2024년 기준 295척이었던 군함을 오는 2054년까지 39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 비용은 1조750억달러(약 1562조원)로 추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운송 비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미국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간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미국의 조선 역량이 감소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진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실제 이행여부를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전삼노,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평균 임금 5.1% 인상 등 담겨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베이스 업 3.0%·평균 성과인상률 2.1%)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금교섭을 본격 시작한 올해 1월 7일 이후 약 48일 만이다. 지난해부터 이어 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하여 마무리했다.

회사는 전체 직원에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함께 노사공동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3차녀 이상 직원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한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했다. 전삼노는 3월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앞으로도 교섭대표노조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트럼프 2기 영향, 中企 28% '부정적'... 공급망·환율 부담

중기중앙회, 500곳 대상 조사
무역규제·강달러 우려, 89.8% 무방비
고환율 대응 無 84%... 적정 1300원대
기업들 "원자재·금융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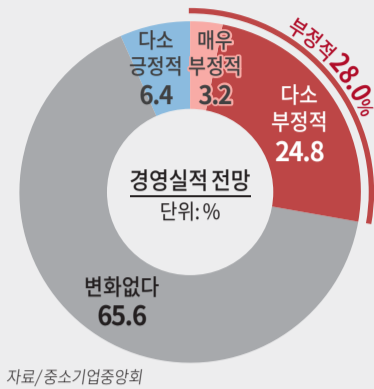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긍정보다 4배 가량 높았다. 무역 규제 강화, 강달러 기조, 공급망 불안정 등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대응 전략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환율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원·달러 적정 환율은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10~21일 중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고환율 장기화에 대한 CEO 의견조사'를 실시한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망과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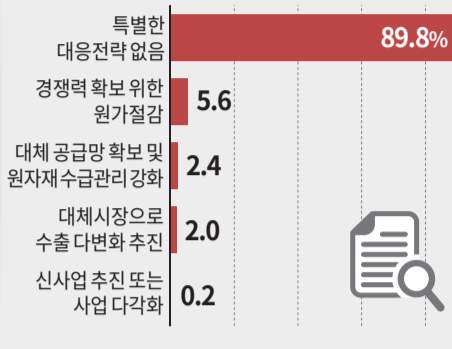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 (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 답변이 28%로 '긍정적' (다소 긍정적+매우 긍정적) 대담(6.4%)보다 4배 가량 많았다. '변화없다'는 전망은 65.6%였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는 '보편적

트럼프 2기 정책 대응전략



기본 관세 등 무역 규제 강화 도입' (61.4%)과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50%),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비용 증가' (38.6%) 등을 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전략은 많지 않았다. 89.8%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한 가운데 '가격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원가 절감 전략' (5.6%), '대체 공급망 확보 및 원자재 수급 관리 강화' (2.4%), '대체 시장(유럽,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 추진' (2.0%) 등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이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 영향이 46.2%로, 19.2%인 '긍정적' (다소 긍정적+매우 긍정적) 영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부정적 이유로는 ▲원부자재 비용 증가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43.3%)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확대(28.6%) ▲물류비 상승(14.3%) 등이었다.

그러나 길어지는 고환율에 대해서도 83.6%의 기업은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 공정 효율화' (5.8%), '제품 가격 인상' (5.2%),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2.6%) 등을 하겠다는 곳은 소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 대응을 위한 지원책 확대(24.2%) ▲금융 지원(정책자금·보증 등) 확대(22.4%) ▲물류비 지원 확대(21.0%) ▲세제 지원(법인세·투자세액 공제 등) 확대(19.4%) 등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에 대해서 '1300원 이상~1350원 미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350원 이상~1400원 미만'이 23.8%, '1400원 이상~1450원 미만'이 18.6%였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 금융·세제 지원과 원부자재·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전투기 훈련장비' 폴란드 운송 성공

시물레이터 2대 등 5주간 운송
군사물자 특성 반영, 캐나다 경유
모듈형 운송·무진동 차량 투입

CJ대한통운이 전투기 훈련장비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며 'K-방산'의 물류 파트너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CJ대한통운은 전투기 훈련장비 시물레이터 2대를 폴란드로 운송하는 방산물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항공우주산업(KAI) 고성 공장에서 출고한 전투 임무 시물레이터(Full Mission Simulator, FMS) 1대와 운용 비행 시물레이터(Operational Flight Trainer, OFT) 1대를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까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주에 걸쳐 운송



CJ대한통운이 전투기 훈련 시물레이터를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했다.

전투기, 전자 등 주력 방산장비와 마찬가지로 훈련 장비인 시물레이터 또한 정밀한 전자 장치와 복잡한 기계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운송 과정에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외부 충격과 진동에 민감해 운송 중 손상 위험이 높아 고도의 물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CJ대한통운은 운송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을 분해된 상태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을 적용했다.

35개의 부품으로 분해한 시물레이터를 개별 포장해 국내 육상운송, 항공운송 및 폴란드 현지 육상운송을 수행했다. 총 28톤에 달하는 대규모 화물에 외부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국내 및 해외 현지 내륙운송 시 총 15대의 무진동 차량이 투입됐다.

화물이 폴란드에 도착한 후에는 철저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상태 점검과 반입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분해된 부품들을 조립해 최종 완성체로 복

원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CJ대한통운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별 영공 통과 규정, 보안 요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항공 경로를 설계했다. 시물레이터가 군사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영공 통과에 제한이 있어 한국에서 폴란드로의 직항 대신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하는 우회 경로를 채택했다.

CJ대한통운 장영호 IFS본부장은 "방산물류에 특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화물운송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폴란드항 시물레이터 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안정적인 물류 운영을 통해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K방산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보 중남미에 기술평가 전수

기술보증기금이 중남미에 기술평가 노하우 등을 전파한다.

기보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코스타리카형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중남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IDB 현지 컨설턴트와 협력해 코스타리카개발은행(SBD), 무역투자진흥청(PROCOMER), 혁신연구진흥원(PROINNOVA), 기술연구소(TECH) 등을 대상으로 2026년 9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IDB와 기술지원 컨설팅 계약
코스타리카 기술평가·보증 지원

이번 계약을 통해 기보는 ▲한국의 혁신 제도 벤치마킹 보고서 작성 ▲코스타리카형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코스타리카형 기술보증제도 설계 및 업무 매뉴얼 작성 ▲정책 확산 세미나 개최 ▲기보-IDB 공동 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보는 2024년 '페루형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다. 이에 IDB는 중남미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도구로 기술평가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기술금융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 중 코스타리카를 두 번째 협력국으로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제주항공, 기내서 배터리 불나면 '자체 진화'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 도입

제주항공이 배터리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제주항공은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와 '내열 장갑'을 기내에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최근 모든 항공기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와 내열장갑을 비치하고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사용법을 공지했다.

화재 진압 파우치의 외피는 1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염 소재인 '실리카'로 만들어졌다. 내부는 '질석 패드'로 구성돼 있어 파우치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질석이 열기에 녹아 배터리를 덮으며 산소를 차단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항공기 기내에서 배터리의 발열 및

팽창 현상이 나타날 경우 승무원은 배터리를 해당 파우치에 넣어 항공기 뒤쪽 주방에 보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한 화재 진압 파우치는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인 KATRI 시험연구원의 테스트를 통과해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제작업체 선정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재질 선정, 디자인, 사용 매뉴얼 제작 등 파우치 도입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배터리 화재로 인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에 화재 진압 파우치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홈앤쇼핑, 6억 규모 성과공유제 시행

40개 협력사에 1500만원씩
현재까지 658곳, 67억 지원

홈앤쇼핑이 올해 6억원 규모의 성과공유제 시행에 들어가는 등 중소기업과 상생을 이어간다.

24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올해 성과공유제를 통해 40개 협력사에 15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2012년 개국한 홈앤쇼핑은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2013년부터 초과 이익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658개 중소기업 협력사에 총 67억원을 지원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취지를 더욱 잘 살릴 뿐 아니라, 대상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기술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홈앤쇼핑은 협력사 상품 판매 대금 지급 시기도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사업 초기 평균 32.5일이던 대금 지급시기를 현재는 평균 8일 수준으로 3주 이상 대폭 축소했다. 매월 10일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금액을 정산해 마감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상생펀드 운용 ▲미자 자금 대출제도 신설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인증 (ISO37001) 등 홈앤쇼핑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정도경영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무까지도 완수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삼성전자, 안정성 집중... '엑시노스 2500' 수율개선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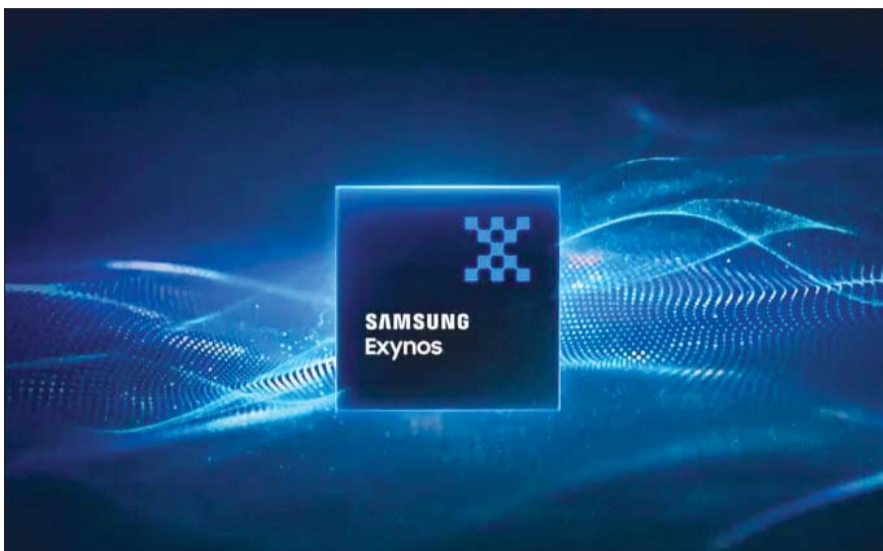
〈차세대 모바일 앱 프로세서〉

GPU 성능·CPU 코어 수 낮춰 수율↑
이르면 내달부터 웨이퍼 테스트
경쟁사 격차 좁히고 안정공급 목표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500'의 수율(양품의 비율)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사양을 조정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7'에 원활히 탑재하기 위해 품질 보다는 생산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500의 수율 개선을 위해 그래픽 처리장치(GPU) 성능을 낮추고, 일부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수를 낮춰 칩 생산 수율을 높이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엑시노스 2500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3월부터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웨이퍼 테스트는 초기 생산된 칩의 성능과 안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프로세서(AP) '엑시노스 칩'.

/삼성전자

정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엑시노스 2500은 삼성의 최신 3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적용한 제품으로, 기존 4nm 공정 대비 전력 효율과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PU 및 GPU 성능 향상 ▲인공지능(AI) 연산 능력 개선 ▲카메라 처리 성능 강화 등을 목표로 개발됐다.

엑시노스 2500은 애초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될 계획이었으나, 수율 문제 등으로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 Z 폴

드7에 처음 탑재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엑시노스 2500의 수율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능"이라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비교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율 개선만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칩 생산 능력은 월 5000개 수준에 그치며, 수율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TSMC는 이미 3나노 공정에서 높은 수율을 확보하며, 애플의 A17 바이오닉 칩에 3나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높은 수율을 바탕으로 퀄컴, 미디어텍 등 주요 고객사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빅벤치6'의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엑시노스 250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엑시노스 2500의 싱글코어 점수는 2358점, 멀티코어 점수는 8211점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싱글코어 점수 3196점, 멀티코어 점수 1만1115점보다 낮았다. 엑시노스 2500은 싱글코어에서 36%, 멀티코어에서 19% 낮은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기술력 강화 ▲전력 효율 개선 ▲AI 및 이미지 처리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퀄컴, 미디어텍과의 격차를 좁히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 공정의 안정화와 수율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엑시노스 2500을 통해 모바일 AP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넥슨, 'FC온라인' 구단 프랜차이즈 도입

올해 e스포츠 대회 개편안 발표
FSL로 새단장... 개인전 중심
상금 규모도 4배 확대... 10억 규모

넥슨이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 'EA 스포츠 FC 온라인'의 올해 대회 개편안을 발표했다.

24일 넥슨이 발표한 e스포츠 대회 개편안은 ▲구단 프랜차이즈 도입 ▲리그 생태계 구축 ▲전문성 강화가 핵심이다.

넥슨 측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리그로 확장하고, 보는 재미를 넘어 대회에서 창출된 서사와 게임의 연계를 통해 e스포츠 본연의 재미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T1, 젠지(Gen.G), 케이티 롤스터(KT Rolster), 디알엑스(DRX), 비엔케이 피어엑

스(BNK FEARX), 농심 레드포스(Nongshim Redforce), 디엔 프리스(DN FREECS), 디플러스 기아(Dplus KIA) 등 8개 구단이 프랜차이즈로 대회에 참여한다. 각 팀에는 작년 대회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비롯해 신예들이 대거 소속돼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전체 리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해 각 리그 레벨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내 최상위 리그인 'eK리그 챔피언십'을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십 리그(FSL)'로 새롭게 단장하고, 축구게임 특성에 맞게 경기 방식이 개인전 중심으로 변경된다.

연간 2회 진행되며, 8개팀에서 4명씩 출전해 총 32명의 프로 선수들이 최정상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FSL'과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2부 리그 'FC 온라인 퓨처스 리그(FFL)'는 프로지망생, 구단 예비 선수 등 32명이 참여하며, 리그 종료 후 이적시장을 통해 'FSL'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미 프로 레벨의 오픈 리그를 연간 6회 이상 개최해 프로 레벨과 연계하고, 대회 지원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도 지원한다.

대회 개편 이후 첫 리그인 '2025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십 리그 스프링'은 오는 3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총 상금 규모를 예년보다 네 배 확대한 1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상위 2개팀에게는 국제대회 'FC 프로 마스터즈' 출전권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이노그리드, 전북銀 '클라우드 통합관리' 지원

택클라우드 및, 내부시스템과 연동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전북은행의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요 인프라와 가상화 관제를 체계화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안정적인 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노그리드는 전북은행의 기존 가상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택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내부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택클라우드 및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원 관리를 돕는 플랫폼이다. 클라우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용량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또 각 클라우드에 직관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클라우드의 상태를 시각화해 모니터링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준다.

본 사업을 통해 전북은행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비롯한 프라이빗·퍼블릭 클라우드 등에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분산된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노그리드는 자사의 클라우드 비전 및 로드맵을 전북은행과 적극 공유하며 최적의 클라우드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ki@

KT클라우드 자사 GPUaaS에 엔비디아 H200 적용

KT클라우드 자사 서비스형 그래픽 처리 장치(GPUaaS)에 엔비디아 H200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KT클라우드 자사는 인공지능(AI) 인프라가 필요한 국내 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탄력적인 GPU(그래픽 처리장치) 자원 이용이 가능한 GPUaaS를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KT클라우드 자사는 ▲단기간 대응량·고사양의 GPU 공급이 요구되는 학습 영역에 특화된 'AI 트레인' 등 엔비디아 기반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왔다.

KT클라우드 자사는 기존 H100 중심으로 운영되던 AI 트레인 서비스에 H200을 적용해 한층 강화된 성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LG CNS, 금융기업에 맞춤형 AI 모델 제안

'금융 맞춤형 AI 평가 도구' 개발
29가지 평가 지표 등으로 구성

LG CNS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원하는 금융 기업을 위한 '금융 맞춤형 AI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LG AI 연구원의 엑스원 3.5, 메타의 라마, 알리바바의 쿼원 2.5를 포함한 수십개의 개방형 거대 언어 모델(LLM)을 평가해 बैं킹, 보험, 증권 등 금융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찾아주는 도구로, 29가지 평가 지표와 약 1200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금융 지식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 ▲수학적 추론 능력 ▲복잡한 질문 이해력 ▲문서 요약 능력 ▲금융 용어 이해도 ▲AI 에이전트 사용 능력 등이다.

LG CNS는 인공지능이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금융 관련 추론 문제들을 29개 평가 지표에 적용해 성능 검증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이 평가 도구를 통해 금융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최적의 LLM 선정부터 커스터 마이징, 안정적인 운영까지 금융권 특화 생성형 AI 적용 단계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신군 LG CNS 대표는 "금융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AI 모델이 서비스에 가장 적합할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LG CNS의 금융 특화 AI 평가 도구는 금융 기업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T 홈캠 안심'으로 사생활 유출 걱정 끝”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보안 기능

KT는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보안 기능이 적용된 가정용 홈캠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T가 이번에 선보인 'KT 홈캠 안심'은 가정용 스마트 보안 카메라로,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특징을 지녔다.

KT 관계자는 "홈 CCTV 이용자가 늘면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암호화 규격(AES 256)을 통과한 KT 홈캠 안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KT 홈캠 안심은 허용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기능을 제한하는 개인 정보 보호 모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 KT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까지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KT 홈캠 안심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실시간 영상 확



KT 홈캠 안심.

/KT

인이 가능하다. AI 기반 모션·소리 감지 기능을 통해 특정 영상을 저장하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KT 홈캠 안심은 ▲육아 ▲반려동물 관리 ▲따로 사는 부모님의 위급 상황 기록 ▲1인 가구 실시간 보안 점검 등에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방향 통화 기능을 지원해 휴대전화 없이도 집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으며, 홈캠의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수수료 인하에 일임형 확대... 증권사, 퇴직연금 유치 올인

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도입 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6491억 이동 이전고객 100만원 상품권 이벤트도

일부상품 이전제외, 시간소요 등 퇴직연금 이전 활성화 과제 남아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운용수수료 인하, 일임형 상품 출시, 실물이전 이벤트 등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이전 제한과 거래 중단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6491억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으며,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RP와 DC형은 근로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연금 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 규모가 45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0일 기준 30조 7000억원으로, 1월 23일 기준 30조 1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6000억원 증

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D B) 6조 860억원, DC 12조 3734억원, IR P 12조 2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은 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일임형' 상품을 확대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

사들은 IRP 및 DC형 실물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 확대, 연금 개시 시뮬레이션 도입 등 디지털 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에도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금융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ETF,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머니마켓펀드(MMF),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은 현금화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DC형에 가입 중인 직장인 황두나 씨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윗고 싶은 증권사에 없어서 번거로우 바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실물이전에는 평균 3~4일이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계좌에서 매매나 출금이 불가하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이 어렵고,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실물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도중 매수·매도 주문이 걸려 있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증권사가 운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이동 제약과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곧 500조원이 넘어갈텐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강달러 주춤... 아시아 증시 반등 신호탄

글로벌 투자자, 2차 개발도상국서 지난주 5거래일간 7억 달러 매수 "트럼프 관세충격 예상보다 작아 아시아 주식시장 투자심리 개선세"

글로벌 주식투자자들이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주춤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도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주 5거래일 동안 아시아 개발도상국(중국 제외) 주식시장에서 7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지수도 지난주 1.8% 상승했다.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주의 상승세로 최근 6개월간 지수 하락 폭도 약

12%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달러 강세와 글로벌 무역 긴장 우려로 저조하던 아시아 지역 증시가 반등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MSCI 아시아 신흥국(중국 제외) 지수의 향후 1년 수익 대비 추가(멀티플)는 약 15배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의 22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마이트리자산운용의 한(Han) 피오 리우 펀드매니저는 "트럼프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느리고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반등 조짐이 나왔다"면서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가 맞물려 글로벌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협상 전술로 보는 견해도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나라가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뒤 관세 부과를 한달간 유예했다. 중국과 홍콩의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종료 계획도 연기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달러화 가치도 이달 초 고점 대비 3% 이상 하락했다. 이는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달러화 강세가 막바지에 왔다는 신호도 나타났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들의 달러화에 대한 전망은 아직 '강세'가 많지만, 최근 4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 경제 국가의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5.5% 상승해 S&P 500지수 상승률 1.3%를 크게 웃돌았다.

/원관희 기자 wkh@



정보은행 이사장, MSCI 사장 면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베어 페티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원쪽)를 만나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현안 및 양사간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증권사들, 일반환전 서비스 시장 출사표

신한투자, 개인·기업 대상 출시 계획 키움·삼성·NH·미래에셋도 준비중

국내 대형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장 선점경쟁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인,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국내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

이외에도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일반환전 인가를 받으면서 환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지 않은 초대형 IB인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도 시장 진출을 검토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대고객 외환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환전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이라며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전시장은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은행이 독점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큰 수익을 남기기 힘든 시장이란 얘기가.

증권사들은 리테일 부문 강화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전 업무 자체가 수익이 된다기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는 부분"이라며 "일부 리테일 고객들은 서비스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서학개미가 늘어남 만큼 타 증권사와 서비스 유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방어함과 동시에 일부 파생상품 등과 연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금정호 신영증권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

정헌기 총괄 전무→부사장 승진

신영증권이 기업금융(IB) 부문 전문가로 불리는 금정호 부사장(사진)을 새 수장으로 맞이했다.

신영증권은 24일 정기인사에서 금정호 부사장이 흡세일 본부 IB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금정호 부사장은 1966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1990년 동양종합금융 입사를 통해 증권가에 입성

했으며, 한국투자증권, 브릿지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친 후 2006년부터 신영증권에 합류했다. 신영증권에서 IB Coverage 그룹 담당임원(이사), IB 담당임원·본부장(상무), IB총괄(전무) 등을 거쳤으며 흡세일 본부, IB총괄 부사장까지 올랐다.

금정호 부사장은 신영증권에서 IB 부문을 도맡으며 성장세를 이끌어 왔다. 신영증권은 중소기업사 IPO(기업공개) 강자로 꼽히며, 올해도 10여개사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신영증권은 이번 인사에서 정헌기 FICC본부 총괄 전무를 부사장으로 올렸다.

정 부사장은 1969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등에서 2009년 신영증권 채권금융부(부장)로 올랐다. 이후 신영증권채권금융부(이사), 신영증권 FICC본부본부장(전무), 신영증권 Structured Products 본부·FICC본부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무역투자 GPT’로 디지털 전환 코트라, 소비자 중심 경영 확대

신고객가치경영 선포... CCO 임명
상반기 AI무역·투자 지원 시스템 도입
고객소통 강화, 최고고객책임자 신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신 고객가치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최고고객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 직위를 신설한다.

코트라는 24일 본사에서 ‘신 고객가치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작년 12월 고객을 첫 번째 핵심가치로 삼는 가치체계 개편에 이어, 코트라의 구체적인 경영 방향을 대내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우선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Centered Management)을 도입하고, 모든 활동을 고객 중심으로 구성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객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고 고객책임자 직제를 도입, 이정훈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을 임명했다. 코트라는 올해 안으로 소비자중심경영 구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24일 서울 본사에서 ‘신 고객가치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코트라

축 여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도 취득할 계획이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대기업 114곳, 중소기업 67곳, 공공기관 55곳이 보유 중으로 3개의 준정부기관·공기업이 포함돼 있다.

코트라는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활용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빠르게 해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간단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코트라형 무역투자 GPT’를 구축하고, 이를 대외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코트라형 무역투자 GPT는 코트라 생산정보를 우선 활용, 인터넷의 일반 정보를 활용하는 상용 GPT의 ‘환각현상’을 극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해외관세청의 수입 데이터와 AI 품목 분석을 결합해 실거래 바이어와의 매칭 정확도를 한층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텍스터)를 20개소로 확대하고, 1600명의 기업직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무역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날 “이번 선포식을 통해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발 앞서 행동한다’는 코트라의 다짐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서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헬스장 8곳 중 1곳 가격표시제 미이행

공정위, 가격표시제 이행 권고·홍보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비자단체를 통해 서울과 주요 시도 소재 헬스장 201곳을 대상으로 헬스장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12.4%인 248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경기, 경남, 전남 등 지역을 일부 확대해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 지자체, 헬스장 가맹본부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 활동과 병행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이행을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내 농식품 산업 해외 시장 개척 돕는다

농어촌공사, 농식품 해외진출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 서울 용산에서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함께 개최한 이 행사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용자지원사업’과 ‘기술개발 해외적용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및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용자지원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용의 최대 70%를 연리 1.5~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용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법인의 현지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용자지원사업은 다음 달 4일까지 1



전남 나주 소재 농어촌공사 본사.

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용 지원사업은 2월 말 별도 공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원자격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공사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식량안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피해자 6000명... 중고거래 사기 민원 급증

권익위, 최근 3년간 관련 민원 분석
조직적 범행에 피해액 65억 넘어
콘서트 티켓·전자기기까지 사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만 6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고 명의도용으로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좌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금 자동계좌로 이용하고 있어요. 콘서트 티켓,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 모바일 상품권, 전자기기 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포획 금지 중인 자라를 버섯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합니다. 잡으면 안되는 야생동물을 잡는 것도 모자라 대농고 판매까지 하려 하니,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중고거래 관련 사기 피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사기 피해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 관계기관에는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2월 ~ 2025년 1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중고거래 관련 사기 피해 등의 신고가 증가하자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 10월엔 월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고거래 관련 주요 민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으로 나뉜다.

민원 신고 사례를 보면, 구매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먹튀 사기부터, 버섯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린 카페를 개설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름과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 올려놓고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또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판매한 다거나,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하는 의료기구나 의약품 판매 등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자를 제보한다는 글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 민원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8000건으로 전월(107만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동월(109만건) 대비로는 10.4% 감소했다. 민원 기관 유형별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민원(전월 대비 34.7% ↑)’, 평창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140.8% ↑)’,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축제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민원(542.6%)’ 증가폭이 컸다. 공공기관에서는 KC 인증 관련 민원 등 313건이 접수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원이 전월 대비 50배 넘게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작년비 60% 확대

농식품부, 고령자·취약계층 등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경북 안동에서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는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고령자·농업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에 더해, 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한다. 또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의 항목도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

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 해, 농촌 주민 9만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60% 늘어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Gallery 

霜松常菁

고재봉 초대전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KO JAE BONG

2.18(화) - 3.1(토)
갤러리아람

주최 Gallery  후원  동성계약 신안동방갤러리

• 관람시간 11:00-19:00 *일·월요일 정기휴관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경주시, 2381억 투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IBK기업은행 등 4개 기관 협력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상향지원
기숙사 임차비 등 7개 사업 진행

경주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경북도·IBK기업은행·한수원 등 4개 기관에서 2381억 규모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경북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경주시 운전자금(800억) 이차보전을 지난해 3%에서 4%로, 경북도 운전자금(301억) 이차보전을 지난해 2%에서 4%로 상향지원 한다.

이러한 경주시의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711개 업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시는 사업비 17억을 들여 2, 3차 밴드 중소기업 비중이 큰 경주시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주낙영 시장이 해오름동맹 벤처 창업기업 혁신포럼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진행하여 190개 업체에서 수혜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3억 증가한 17억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5.4억)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지원(3억)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2.3억) ▲골든기업 육

성(1.3억) ▲해피모니터 고충처리 지원(2억)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2억)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억)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지원에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80여 명 이상의 근로자 전입이 예상된다.

특히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골든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와 지원사업 확대 문의가 쇄도하여 현장 실태를 점검하여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확장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상공회의소, 외동공단연합회, 경북도·경주시 여성기업인협의회, 개별공단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에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연관기업이 1300여 개로 도내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시인 만큼, 최근 경기부진, 인력난 문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하여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가 넘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발행

경남 창원시는 진해군항제를 맞아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3월7일부터 10일까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판매는 모바일형만 발행하며 규모는 100억원으로 개인 할인구매 한도는 20만원이고 할인율은 7%다.

모바일 상품권은 1960년 이전 출생자는 3월7일 오전 9시부터 우선 구매 가능하며, 1961년 이후 출생자는 3월10일 오전 9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초중고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경북교육청이 초중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학교로 On(온) 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작해 1학기부터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료의 'On(온)'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켜다(On)'의 의미와 경북교육의 목표인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따뜻함(溫)'의 의미를 담고 있다.

초등학교 자료는 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에 위한 준비 과정, 입·전학, 출결 등 전반적인 내용 등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정 연수, 교실 속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산시

화명생태공원 나무심기 행사

부산시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화명생태공원에서 시민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참여형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숲·정원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나무 심기와 나무 나눠주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107개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경남도는 해빙기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7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107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공사 현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강진군 '청자축제'.

강진군 '청자축제', 첫 주말 4만명 몰려

'흙, 사람 그리고 불' 주제로
8개 분야, 65개 프로그램 준비

'봄의 서막'을 알리는 제53회 강진청자축제가 개막했다. 축제가 시작된 첫 주말부터 4만명 가까이 인파가 몰리며 축제의 성공을 예고했다.

24일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청자축제는 '흙, 사람 그리고 불'이란 주제로 8개 분야, 65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습과 전통 체험, 어린이 놀이터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2일 오후 4시10분 천년 문화의 정

수, K-컬처의 원조 강진 고려 비색청자를 구워내기 위한 '화목가마 불지피기'가 진행됐다.

다음날인 23일 고려청자박물관 제2호가마에서 48시간동안 구워낸 청자를 꺼냈다. 청자의 빛은 영롱했다.

개막 주제공연으로 '강도공진도공 이야기'를 펼쳤다. 샌드아트 영상과 함께 진행됐다. 뛰어난 연출력과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많았다.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올해 청자축제는 청자의 정체성을 살린 청자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덕군, 내달부터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읍내에 센터 조성해 접근성 ↑

영덕군은 반려동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조·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영덕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져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영덕군은 읍내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해 전문적인 입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 활성화와 건강한 입양문화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새로 건립한 입양센터는 소형

견과 고양이를 위주로 보호하고 기존 시설인 보호센터는 대형견 위주로 주요 업무를 분리해 업무를 체계화하고 입양 희망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10~20마리 소규모로 운영되며, 입양을 결정하면 반려동물 인식칩 등록, 기초 예방접종 등의 기본적인 의료 지원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률 증가와 함께 인락사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서비스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윤리적이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대구시 '포스코 더샵', 초고분양가 논란

1평 당 4500만원 수준

대구 수성구에서 오는 5월에 분양 예정인 포스코 더샵 어너드범어가 1평 당(3.3㎡) 4500만원 수준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주) 두레씨엔디가 대구MBC부지를 매입, 지하 6층 지상 33층에 아파트 604 세대, 오피스텔 148세대 규모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후분양하는 단지다.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으나, 1평 당(3.3㎡) 4,500만원대에 분양을 할 경우 136㎡(53평형)은 23억원대, 244㎡(95평형)은 40억원을 넘길 거란 전망이다.

이는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학군 등으로 수요가 집



포스코 더샵 조감도

중되는 인근의 수성구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7억원(지난해 11월 기준), 1평당(3.3㎡) 2500만원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매수요를 감소시켜 미분양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대구전체의 미분양은 8807가구로 미분양 물량 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으로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울산시, 올해 투자유치 5조1700억 목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나서

울산시는 산업수도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2025년 투자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투자유치 5조1700억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전략적 투자유치와 홍보 강화 ▲기업 맞춤형 지원 및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한다.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과 특구사업 본격 추진,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역 주도 대학 혁신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투자유치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로 미래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투자유치 홍보와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보릿고개’ 신세계인터, 패션·뷰티 강화로 실적반등 노린다

작년 영업이익 45%, 매출 3% ↓
‘자주’ 온라인몰·앱 전면개편

남성복 ‘맨온더분’ 리브랜딩
‘어뮤즈’로 뷰티 사업 다각화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실적 반등을 목표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성장 전략을 가속화한다. 패션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뷰티 부문 경쟁력을 높여 매출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4일 신세계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자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의 온라인몰과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한다. 실제 자주는 한국적인 요소를 활용해 현대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브랜드로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몰 역시 한국적인 감성을 반영한 페이지 구성과 삶의 지혜·해법이 담긴 콘텐츠를 활용해 단순한 쇼핑 플랫폼



신세계인터내셔널 청담사옥 전경.

/신세계인터내셔널

을 넘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남성복 브랜드 ‘맨온더분’은 브랜드 론칭 10년 만에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기존 30~40대 비즈니스맨을 겨냥한 유티피안 스타일에서 벗어나, 연령층을 넓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남성 브랜드로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이 과정에서 로고, 콘셉트, 디자인,

패키지 등 브랜드 전반이 변경됐으며 제품군 역시 한국 남성 체형에 최적화된 핏과 디자인으로 개편됐다.

이처럼 신세계인터내셔널이 대대적으로 브랜드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실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1조 3086억원으로 3.4%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9% 급감했으며, 4분기 매출은 3823억원으로 2.6% 감소했다.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신세계인터내셔널은 패션 부문뿐만 아니라 뷰티 사업군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인디 뷰티 브랜드 ‘어뮤즈’ 인수를 통해 뷰티 사업 다각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어 자재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 리브랜딩을 추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향 전문 브랜드 ‘베스앤바디웍스’의 국내 사업권을 양수받으며 본격적인 국내 뷰티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지난 21일에는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몰에 ‘베스앤바디웍스’의 두 번째 국내 단독 매장을 오픈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매출액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과 확장성을 대폭 개선한다”며 “자사 브랜드 리브랜딩, 메가 브랜드 육성,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통해 성장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하고, 코스메틱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고객 원하는 상품·경험 선제적 제시해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취임 첫 신입사원과 공식 만남
“고객 칭찬보다 불만에 귀 기울여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이끌 신입사원들과 만나 신세계의 핵심 가치인 ‘고객제일’ 실천 전략을 강조했다.

24일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신세계 인재개발원 ‘신세계남산’에서 열린 신입사원 수료식에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지난해 3월 회장 취임 이후 신입사원들과 가진 첫 공식 만남이다.

수료식에서는 2주간 그룹 연수를 마친 신입사원들이 마트, 백화점, 편의점, 카페, 복합쇼핑몰, 야구장 등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다양한 고객 접점 공간을 혁신할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신입사원들의 발표를 지켜본 뒤 “오늘 발표 내용 중에는 최근 임원진과 머리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남산’에서 열린 신입사원 수료식에 참석해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신세계그룹

맞대고 논의했던 주제가 정확히 포함돼 있었다”며 이들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신세계의 경영 철학을 설명했다.

특히, 정 회장은 “고객의 칭찬에 만족

하기보다는 불만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고객 중심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그들이 원하는 상품과 경험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연수원에 있을 때는 좋은 얘기만 들었지만 막상 진짜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 엄격한 잣대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힘들어도 그 곳에서 성장하면서 더욱 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번 신입사원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2025년 신세계그룹 공개채용 최종 면접에서 정 회장이 직접 선발한 인재들이다. 그는 지난 1998년부터 27년간 매년 신입사원 면접관으로 참여해 왔다.

신세계그룹 신입사원들은 각 사별 연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현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현대백, 신규출점·리뉴얼 ‘아울렛 강화’

상반기 청주에 ‘커넥트현대’ 2호점
2027년 부산에 복합쇼핑몰 계획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시장 진출 10년을 맞아 신규 출점과 점포 리뉴얼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충북 청주시에 ‘커넥트현대’ 2호점을 개점하고 오는 2027년에는 부산광역시에 프리미엄아울렛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유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커넥트현대에는 백화점과 아울렛의 강점을 결합한 도심형 복합쇼핑몰이다.

또, 현대백화점은 최근 경북 경산시 경산시식산업지구 내 지역 최대 프리미엄아울렛 부지 입찰에도 성공했다. 이르면 2028년 개점을 목표로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올해 중앙 수로에 ‘이온 히팅 시스템’을 도입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도록 리뉴얼할 예정이다. 이온 히팅 시스템은 물 분자의 이온화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고효율 전기 난방 기술을 뜻한다.

이외에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은 지하 1층에 2030세대 전문관을 확대하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 지점 스페이스원에서는 제조·유통일괄(SPA) 브랜드를 새롭게 입점시킬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10년 만에 새 브랜드 콘셉트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고객 경험 측면에서 현대아울렛만의 콘텐츠를 원점부터 재설계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시장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하이트진로, 소주 신제품 ‘일품진로 마일드’

작년 일품진로 한매량 26% 증가

하이트진로가 100년 역사와 양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증류식 소주 신제품 ‘일품진로 마일드(사진)’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증류식 소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다양해지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저도수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마일드’ 출시를 통해 ▲‘일품진로25’(알코올 도수 25도), ▲‘일품진로 1924헤리티지’(30도), ▲‘일품진로 오크25’(25도), ▲‘일품진로 오크43’(43도), ▲‘일품진로 고연



산’(31도)의 증류식 소주라인업을 확대한다. 하이트진로는 다양한 증류식 소주 신제품을 개발, 꾸준히 선보인 결과 지난해 일품진로 브랜드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26% 증가했다.

‘일품진로 마일드’는 알코올 도수 16.9도의 증류식 소주로, 일품진로의 깊이 있는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첫술과 끝술은 버리고 향과 풍미가 뛰어난 중간 원액만을 사용했으며, 깔끔한 목넘김을 위해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제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온 더모코스메틱 혜택전

롯데쇼핑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내달 2일까지 ‘더모코스메틱 단독혜택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더모코스메틱은 피부 과학과 화장품의 합성어로 일반 뷰티 상품보다 약효가 강조된 화장품들을 뜻한다. 롯데온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라로슈포제, 유세린, 에스트라, 피지오겔, 리얼베리어 등 다양한 더모코스메틱 브랜드가 참여한다. 브랜드별로 단독 특가, 증정 등 행사를 진행하며 최대 7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브랜드에 한해 10%를 중복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일부 추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롯데그룹 통합 회원 포인트인 엘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홈플러스, 이달 온라인매출 1.5조 돌파

3년만에 최대... 전체의 20% 차지

홈플러스가 이달 온라인 부문 매출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매출은 온라인 부문 매출 1조원 돌파 이후 3년만의 최고 기록이다. 이로써 온라인 매출은 홈플러스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게 됐다.

식품과 비식품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특히, 식품 매출 비중은 전체 86%를 차지했으며, 과일·채소·수산·축산·계란·건조식품 등 신선식품 매출이 최대 17% 증가했다.

비식품 부문에서는 가전 매출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홈플러스 온라인 가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빠른 배송 서비스인 ‘즉

시배송’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즉시배송’의 매출 신장률은 34%로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21년 2월과 비교하면 매출이 4배 증가했다.

높은 재구매율도 온라인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회계연도 홈플러스 온라인 재구매율은 64%로 이용자 10명 중 6명이 홈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고객 수 역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이태신 온라인사업부장은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를 넘는 것은 대형마트 업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기록”이라며 “매장에서 파는 신선한 상품을 마치 내 손으로 쇼핑하는 듯한 홈플러스 온라인만의 품질·배송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속 성장하는 온라인 마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CJ올리브영, 'K뷰티 게이트웨이' 구축... 관광객 적극 공략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
여행사·호텔 등 제휴 확대
'K쇼핑' 통해 기업가치 제고

CJ올리브영은 방한 관광객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펼친다.

2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와 함께 'K뷰티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와 행사를 통해 중소 인디 브랜드를 선보이는데 중점을 둔다.

그동안 올리브영은 국내 중소기업의 뷰티 브랜드와 상생하며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K쇼핑'을 완성하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수가 많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매장을 '글로벌 관광 상권'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대 중반 10~20개였던 올리브영 글로벌 관광 상권 매장은 현재 110여개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명동을 비롯해 강남, 홍대 등으로 확대했고, 서울 외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K뷰티 도슨트 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CJ올리브영

지역으로는 부산, 경주, 전주, 제주 등을 추가했다.

해당 매장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외국어 안내문을 곳곳에 부착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상품 정보는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된 전자라벨로 제공하며, 관광객 전용 행사도 수시로 기획하고 있다. 올리브영 대표 정기 행사인 올영세일의 경우, 행사 기간 내 알리페이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관광객만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리브영은 지난 2015년부터 글로벌

관광 상권의 주요 매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동참해 왔다. 이달에는 서울 명동 지역 5개 지점(명동 타운, 명동점, 명동역점, 명동타임워크점, 명동중앙점)과 서울 성수에 위치한 '올리브영엔(N) 성수'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여행사, 호텔 등과 제휴도 맺어 서비스를 세분화한다. 올해 6월까지 글로벌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서 올리브영 패키지를 판매하고 올리브영 할인 쿠폰

을 배포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는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를 포함한 서울 뷰티 트래블 패키지를 운영한다. 해당 패키지는 관광 명소인 서울 명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권 대표 매장인 올리브영 강남 타운에서는 '올리브영 퍼스널 쇼퍼'를 시범 운영한다.

올리브영 퍼스널 쇼퍼는 뷰티 상품에 대한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웰컴 키트 파우치, 구매 금액대별로 구성된 VIP 선물, 호텔 무료 배송 서비스 등도 마련됐다.

올리브영은 이번에 사용자후기와 반응을 점검해 향후 이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역에서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인근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과 해외 의료관광객이 자주 찾는 상권이다. 이들은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부 진정, 선풍기 등 의료관광과 연계된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 측은 "올리브영

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K뷰티 전문 유통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며 "중소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창구가 되도록 글로벌 고객의 오프라인 쇼핑 편의성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80% 이상이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제품인 가운데, 2024년 3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은 3조52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고 전체 방한 관광객 수 증가를 상회하는 외국인 매출이 확대됐다. 또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전년 동기 대비 1.6%p 커졌다.

이러한 호실적에 대해 올리브영은 K뷰티 쇼핑 효과가 글로벌 매출 증가까지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전 세계 150개 국에서 접속 가능한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지난해 글로벌 회원 수도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헤라' 센슈얼 틴티드 샤인스틱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 헤라가 새로운 립스틱으로 '센슈얼 틴티드 샤인스틱(샤인)'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처음 바른 발색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맑고 선명한 색상이 12시간 유지된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방수 기능과 보습 효과도 확인됐다.

색상은 총 8가지로 구성됐는데, 분홍빛의 '보이시'는 생동감을 표현한다. '투베이지'는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엔젤스 키스'는 브라운 계열로 세련미를 더해준다. 이외에 카카오 선물 채널 전용 색상 '로지 레이스' 등이 있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세계최초 '복합 자외선 차단제' 기술 확보

무-유기자차 성분 결합... 장점 집약
차세대 선풍제 제품 개발 '청신호'

한국콜마가 '선풍제' 기술력을 앞세워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세계 최초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성분을 결합한 '복합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외선 차단력이 뛰어난 무기자차의 장점과 발림성이 높은 유기자차의 장점을 한데 집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에 따라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로 구분한다. 각각의 방식은 서로 다른 장단점과 메커니즘을 갖췄는데, 두 성분을 혼합하는 경우 오히려 다양한 한계점이 발

생하기도 한다.

특히 유기자차 성분이 오일 성분과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자외선 차단 성분은 피부를 촘촘히 감싸지 못해 자외선이 투과되는 빈 공간이 생긴다.

한국콜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자차 성분으로 무기자차 성분을 감싸는 형태의 새로운 복합체 원료를 도입하고, 이 신규 원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유브이-듀오 플러스 기술'을 적용했다.

한국콜마는 응집 현상을 막는 최적의 배합뿐 아니라 해당 원료를 선풍제 제형 내에서 안정화하는 '유브이-듀오 플러스'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유브이-듀오 플러스 기술은 광노화

를 유발하는 '장파장'까지 차단하는 것도 특징이다. 인체 피부실험 결과 기존 제품(유기자차·무기자차 단일제)에 비해 400nm대의 장파장 자외선 차단율이 24.8%나 개선됐다.

한국콜마는 복합 자외선 차단제라는 혁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무기 복합체로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 물질'을 포함하는 자외선 차단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PCT)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콜마는 국내외 자외선 차단제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기업 입지를 꾸준히 다져왔다.

지난 2022년 국내 업계 최초로 'UV 테크노노베이션연구소'를 신설했고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엡토즈마' 유럽 품목허가 획득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오리지널 의약품 주요 적응증 통과

셀트리온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엡토라(유럽 브랜드명: 로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엡토즈마'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엡토즈마의 품목허가는 류마티스 관절염, 거대세포종양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요 적응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국내에서, 지난달 미국에서도 각각 엡토즈마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엡토즈마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체

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그동안 강점을 보여 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도 잇따른 제품 허가를 통해 '2025년 11종 제품군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동시에, 자체 의약품 개발 역량을 시장에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라며 "남은 허가 절차와 상업화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성장에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보툴리눔 A형 균주 발견

상업용 특신 생산 가능성 확인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동정하였으며, 상업용 특신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아바이오텍 연구진은 오염이 심하거나 폐사 등으로 보툴리눔 발병 의심이 되는 국내 축사를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했고 그 중 한 샘플에서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는 데 성공해 질병관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완료했다.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이 확보한

균주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존 미국, 유럽 균주의 서열과 독소 유전자 부위의 서열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했으며, 상업용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독소를 생성함도 확인했다.

대웅제약은 "국내외에서 보툴리눔 균주 7종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툴리눔 전문 기업으로 활발하게 균주 및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국내 보툴리눔 기초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균주의 활용을 원하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관계 기관 승인 하에 자유롭게 분양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한양행 '마그비' '마그비엑스' 출시

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영양제 브랜드 '마그비'에서 국내 최초로 4종 마그네슘과 전통 한방 성분을 결합한 '마그비엑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산화마그네슘, 구연산마그네슘,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아스파르트산마그네슘 등을 독자 배합해 마그네슘의 흡수율과 지속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작약과 감초 성분을 더해 양한방 복합 처방을 구현했다. 작약은 근육 이완과 경련 완화에 도움을 주고, 감초는 염증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이청하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정진완 우리은행장, '저출생 극복 챌린지' 동참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 어린이집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저출생 극복 금융권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진완 우리은행장(가운데)과 우리은행 어린이집 교사·생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상생복지관 개관식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울산CLX)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생복지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상생복지관은 대기업 상주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 사업은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성균관대, 사내대학 첫 졸업생 배출

삼성전기는 '소재·부품'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균관대와 정식 사내대학 과정을 운영해 지난 21일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사내대학 졸업생은 삼성전기에 특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전자전기, 신소재, 기계, 화학공학 분야를 융합한 대학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전기



유한재단, 올해 141명에 77억 규모 장학금 수여

유한재단은 지난 21일 유한양행 본사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유한재단 장학금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025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김민경 등 141명으로 장학금 규모는 77억원 수준이다.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왼쪽)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유한재단



롯데웰푸드, '닥터자일리톨버스' 봉동아동센터 방문

롯데웰푸드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함께하는 132회차 '닥터자일리톨버스'가 전북 완주군 봉동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닥터자일리톨버스'에는 위세량 롯데웰푸드 커뮤니케이션부부장, 최중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등의 의료팀을 비롯한 10여명의 봉사단이 함께 했다. /롯데웰푸드

CJ그룹, 베트남 지역사회 상생... 미래 핵심사업 대비

맘응마을 찾아 의료봉사 실시 현지 초등학교들에게 교복 전달

CJ그룹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베트남 님투언성 맘응마을을 찾아 의료봉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CJ는 '지역사회와 협력, 상생한다'는 그룹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한국의 의료봉사단체와 협력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의료봉사는 2015년, 2024년에 이은 세 번째 베트남 의료봉사 활동이다. CJ제일제당 임직원, 원천침례교회 봉사자, 의료진, 약사, 미용사 등으로 이뤄진 약 30명의 봉사단은 사흘간 맘응마을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처방,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약품과 개인 위생교육을 제공했다.

봉사 마지막날인 21일에는 럽선



CJ그룹이 베트남 님투언성 맘응마을을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CJ그룹

A초등학교에서 교복 전달식이 진행됐다. CJ사회공헌추진단과 맘응마을 및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J올리브영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교복과 책가방 약 500세트를 럽선A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CJ는 님투언성 농촌 자생력 강화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KOI

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고추 재배를 지원하는 CSV 사업인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와 관련된 사후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해 종자와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운영 체계를 강화해 베트남 지역 농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CJ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룹의 미래 핵심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모비스, 협력사 파트너십 강화

'2025 파트너스 데이' 성료 품질·안전 등 10개부문 시상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협력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1일 주요 협력사 대표 220여명을 초청해 제주해비치호텔에서 '2025 파트너스 데이'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대표들과 회사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품질, 안전, 신차개발, 구매, 동반성장 등 10여개 부문별로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협력사와의 상생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동반성장펀드 등 협력사 자금 지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했고,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2019년에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지난 21일 제주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2025 파트너스 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을 선포,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과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은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이 협력사의 글로벌 확장에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플레이오스25' 참가자 모집

내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개발 체제로의 전환과 차량용 앱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3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개발자 컨퍼런스 'Pleos(플레이오스) 25'의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바일 앱 개발자 및 비즈니스 파트

너를 대상으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앱 개발 환경과 차량용 앱마켓을 선보이고 이들과의 협력 기회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브랜드와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현대차그룹이 SDV의 생태계를 한 눈에 보여줄 예정"이라며 "새로운 차량용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개발자들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GS25, 106주년 삼일절 특별 캠페인

국가보훈부 협력... 온·오프 기획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제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역사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협

력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중 하나로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 콘텐츠 선보인다.

이번 콘텐츠는 참여자가 1919년 백산상회의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채팅하며 삼일운동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정관장, '당을 읽어드립니다' 캠페인 후원

교보문고 강남점서 책방 컨셉 운영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를 론칭한 정관장이 (사)한국당뇨협회가 진행하는 혈당 케어 캠페인 '당을 읽어드립니다'를 공식 후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책방 컨셉의 '당을 읽어드립니다'는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내달 16일까지 운영되는 캠페인으로 혈당에 대한 정보와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책방에는 ▲GLP-1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 등과 같은 혈당 관리 지표와 떡볶이, 라면의 당 함량을 측정해보는 등 일상 속 건강 정보를 배울 수

있으며, 교보문고가 특별히 큐레이션을 한 혈당 건강 관련 도서 코너도 운영된다.

다양한 고객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책방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혈당 관리 다짐 카드 만들기 체험과 혈당 건강 서적 내용 등을 담은 혈당 정보 카드를 제공하며, 이벤트 참여를 통해 'GLPro' 샘플을 받을 수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혈당 케어 캠페인 '당을 읽어드립니다'를 통해 혈당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며 혈당 건강 NO.1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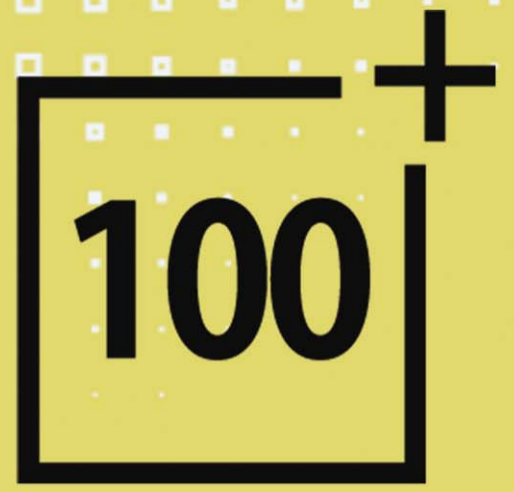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부산지사 주재기자 ▲울산본부장 박기선
- ◆외교부 ◇국장급 승진▲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이병건
- ◆도레이첨단소재 ◇(승진) ◇상무▲이상용 수지케미칼사업본부장 ▲강기원 TIS 대표이사 ▲이두원 필터생산담당 ▲이주열 경영지원본부장 ▲김상엽 섬유영업부문장 ◇전배 ▲고형석 TBSK 대표이사 사장 ▲홍성희 구미사업장장전무 ▲김동명 품질보증본부장 상무 ▲이상모 엔지니어링본부장 상무 ▲노명남 TAHEC 부사장 ▲남현국 필름사업

- 본부장 상무 ▲전종만 섬유생산담당 상무 ▲서성구 PP사업부문장 상무 겸)TA CQ 총경리 ▲김현철 TFN 총경리 ◆중소기업중앙회 〈임명〉 ◇임원 ▲디지털 혁신본부장 정운열

부음

- ▲이경임씨 별세, 이철배(한양전기안전 관리 대표)·춘배(에스-오일 대외부문장)·옥배·옥주씨 모친상, 신종신(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윤영기(안정감리교회 목사)씨 빙모상=2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6일. 02-2258-5925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노년기의 잠 못 이루는 밤



연운열의
푸드톡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카페인 섭취 등 다양한 수면 방해 요인들로 인해 피로감, 집중력 저하, 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천연 호르몬으로, 인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은 주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파인트랄라민에서 생성되며, 어두운 환경에서 생성량이 증가한다. 시각중추가 어둡다고 느낄 때 분비되므로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생활 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휴대폰의 인공조명(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는 습관은 좋지 않다. 밤늦게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밤에 주로 분비량이 증가하며 낮에는 감소한다. 멜라토닌은 저녁 8시부터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어 새벽 3시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최고조에 도달한다. 즉 이 시간은 신체가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멜라토닌이 신체의 낮과 밤 주기를 확실히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침 7시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신체는 점차 깨어나는 상태로 전환된다. 빛 노출에 따라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성을 유도한다. 멜라토닌 분비 그래프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야간의 충분한 어둠 확보, 그리고 아침의 빛 노출이 건강한 수면과 생체리듬에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낸다.

연령별 멜라토닌 분비량 변화 패턴에서는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감소하며, 이는 수면 패턴 및 질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기(0~10세)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가장 높은 시기로 어린 시절에 깊고 안정된 수면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 이후(10~20세)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

다. 이 시기에는 수면 리듬이 뒤로 밀리는 저녁형 생활패턴을 나타낸다. 성인기(20~40세)에는 분비량이 청소년기보다 감소하며, 수면 패턴이 안정화되는 시기이다. 노년기(40~70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노인이 불면증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생체리듬이 약화되며 밤과 낮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결과적으로 얇은 수면이 잦아지고 수면 지속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비타민 C나 E보다 60~70배 강력한 항산화력을 나타낸다. 이는 DNA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 노화를 억제하며 암, 심혈관 질환 등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멜라토닌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규칙적인 수면패턴을 유지하고, 필요시 적정량(2~5mg)의 멜라토닌 보충제 섭취를 권장한다.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멜라토닌 합성을 돕는 물질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타르트레치와 바나나, 호두 등의 견과류, 쌀, 귀리, 보리 등 일부 곡물과 씨앗류, 토마토, 포도를 추천한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 함량이 높아 특히 효과적이다.

/식품기술사·푸드테크 칼럼니스트

오늘의 운세 2월 25일 (음 1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노하게 한다. 4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배회하는 격. 60년생 새 소식을 듣고 문에서 황제. 72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오직 성공으로 측정. 8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37년생 못지 않으려 장사를 접어라. 49년생 독단적인 처리가 발목을 잡는다. 61년생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73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라. 85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된다.



38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방치해서 곤란을 겪는다. 5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해라. 62년생 본래는 공정하게. 74년생 동티가 직전이 원래 가장 어두운 밤. 86년생 가족지 말고 가슴을 펴고 살라.



39년생 결혼은 돌이키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51년생 조상제사에 꼭 참석. 63년생 하나를 얻으려고 셋을 포기하는 격. 75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는데. 87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40년생 친척과의 대화가 근심을 가져온다. 5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64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76년생 나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것도 교만에서. 88년생 거짓말도 변명거리가 필요하다.



41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 53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자. 65년생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77년생 향기 없는 꽃에 속지 말도록. 89년생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필요가 없다.



42년생 휴식이 없는 인생이 서글프다. 5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에 차자. 66년생 헛된 욕심으로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78년생 뜻대로 일이 풀리니 교만해질까 걱정이다. 90년생 얇던 이가 빠진 것처럼 일이 풀린다.



43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서 바로 온다. 5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67년생 물이 들어오니 노를 할것 저러라. 79년생 이직의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91년생 미래를 위해 적금을 반드시 들어보라.



4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56년생 이사장소는 정동쪽만 피하고 움직여라. 68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80년생 며칠 전부터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이득 얻음. 92년생 두드러라. 열리라.



45년생 주변에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57년생 날이 항상 맑지만 바람이 차자. 69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81년생 명상이나 기도를 해보면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다. 93년생 어려워도 포기할 하니 마음은 편하다.



4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58년생 땅 짚고 헤엄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70년생 세상에 나쁘지만 한 일은 없다. 82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이니 분노는 금물. 94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47년생 집안 청소를. 5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71년생 눈에 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83년생 버릴 수 있으니 아직 희망은 있다. 95년생 반려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드니 불쌍하게 중간에 버려지지 않게 신중하라.

K제약·바이오, 위기 속 기회를 찾을 힘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경제국의 패권 경쟁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물보안법'을 적극 추진했다. 이후 올해부터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거둔 성과들은 신약개발이라는 꿈을 실현시키며 보다 큰 목표를 바라보게 했다.

각종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혁신을 보여준 셀트리온은 이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정조준한 SK바이오팜은 중추 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차세대 분야인 방사성 의약품 등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은 후보 물질 탐색부터 상업화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한 스토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실린다.

정통 제약 기업인 유한양행이 국산 항암제 '핵라자'로 처음 글로벌 무대에 등장해 글로벌 기업과 발을 맞추니, 자연스레 다른 국산 의약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저 커지기만 한다. 결국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K' 인증이 불게 됐고, K제약·바이오의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정책적 변수가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하니, 국내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실정에 놓였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접고 우리 기업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료의약품과 관련한 공급망 구축, 해외 의존도 축소 등의 근본적인 과제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핵심 의약품 국가에서의 생산 기지 마련 여부 등은 신약개발 외에도 국내 기업들이 해결해야 과제를 점차 늘리고 있다.

하지만 돌과구는 제약 사업 본질에 있다는 믿음을 강조한 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된다. 좋은 약을 만들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국 K제약·바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mlee236@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은행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대는 금융의 시대다. 금융은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오고 가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융이기 때문이다.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것이 금융의 기본이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경제생활의 원천이고 바탕이다. 초등학교부터 금융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 정도로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의 원조는 은행이다. 은행은 금융의 원산이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의 중심인 은행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은행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금융 실력을 키우는 토대가 된다. 은행의 유래에 대한 기록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꼭 부러지는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록을 모아보면 은행의 유래를 유추할 수 있다. 은행업과 비슷한 업종은 고대에도 있었지만 현대와 비슷한 형태의 은행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세기쯤 유럽에서는 돈 대신에 금으로 상업 거래를 했다. 그런데 금을 가지고 다니려니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커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은 일종의 보관료를 주면서 튼튼한 금고와 가진 금 세공업자들에게 금을 맡겼다. 세공업자들은 보관증을 발행했는데 이 보관증이 상업 거래 수단이 됐다. 금고에 금이 있는 세공업자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주었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 남의 금으로 세공업자들이 돈을 번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금 주인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세공업자들은 무마에 나섰다. 대출로 받은 이자 중에서 일부를 금으로 주인들에게 나눠 준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9	1			3	8	6
7			5			
	8				4	5
			6			7
		8	4			
	5		9			
5	9					1
		4				8
8	6	3				5

8	7	4	2			
		9		1	3	4
						2
7			6	2		
1						3
	3	7				1
6						
2	5	4		7		
		3	9	5	4	

2	9	7	1	4	6	8	9	8
8	8	6	9	9	7	1	2	2
2	1	9	8	8	2	7	6	9
8	9	2	2	6	1	8	9	7
1	6	9	7	2	8	2	8	9
7	2	8	8	9	9	6	2	1
9	7	2	6	1	9	2	8	8
6	2	1	9	8	8	9	7	2
9	8	8	2	7	2	9	1	6

9	7	9	6	2	8	1	2	8
6	1	8	2	9	8	7	9	2
2	8	2	1	7	9	8	6	9
1	9	7	9	8	2	2	8	6
8	9	2	7	6	2	8	9	1
8	2	6	9	8	1	9	7	2
2	8	8	9	6	1	7	2	9
7	8	1	9	8	6	9	2	9
9	6	9	2	1	7	2	8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1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2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버스·지하철·따릉이·한강버스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고 서울'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등 서울 교통수단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 'GO SEOUL (고 서울)'을 제작해 공개했다. 교통수단을 브랜드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고만 보고도 서울 내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구축했다"라며 서울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고 서울'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기후동행카드로 통행이 가능한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등 4개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교통수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의성 증대하는 등 세계적인 교통수단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고 서울'의 브랜드 심볼은 '가다'를 의미하는 'GO'와 무한대 기호(∞)를 콜라보해 만들어졌다. 서울 교통이 무한대로 연결되고 발전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도 담겼다. 특히 '이동'과 '연결', '지속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체계 통합브랜드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고 서울' 발표 영국 런던의 '라운델' 벤치마킹 4개 이동수단에 브랜드 순차적용

능'을 키워드로 심볼을 제작, 탄소절감의 고유 의지도 담았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고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기후동행카드에 담을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 4개

이동수단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이동수단에 ▲고 버스(GO BUS) ▲고 메트로(GO METRO) ▲고 리버(GO RIVER)버 ▲고 바이크(GO BIKE) 등 서브 브랜드도 구축하고, 각 서브 브랜드 이미지를 각 교통수단에 순차적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 서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국 런던 '라운델' 등 도시를 대표하는 해외 교통시스템 통합브랜드를 벤치마킹했다. 1910년 영국 런던 교통수단 통합브랜드로 구축된 '라운델'은 100여 년간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제작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과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반영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영국 런던보다 경쟁력 있고, 세계적이라 할 만 하지만, '라운델'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이 하나의 로고로 상징화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라며 "'고 서울'의 탄생으로, 이 로고만 보면 세계인이 대한민국 서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연상 작용을 할 수 있게 돼 서울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지역-대학 동반성장 '라이즈' 본격 시행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개최 올해 765억, 5년간 4225억 투입

올해부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글로벌 산학협력,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맞을 올렸다.

서울시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제1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서울시 라이즈(RISE)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형 라이즈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면서 시는 올해 국비 565억, 시비 200억 등 765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225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라이즈'를 추진한다.

서울형 라이즈 계획은 ▲글로벌 대

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평생·직업교육 강화 ▲대학창업 육성 등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산학협력,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 등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전략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 대학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대학과의 공유·협력을 확대하는 초광역 사업을 도입한다.

먼저, 글로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대학 10개교와 본 글로벌 기업 40개를 육성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서울의 전략산업들과 연계함으로써 첨단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집중 육성 22개 대학 ▲산학협력 고급인재 1300명(2029년까지) ▲창조산업 인재 500명(2029년까지) 등 육성과 양재, 홍릉 등 AI·BIO 클러스터와 연계해 산업생태계 확장을 시도한다. /이현진 기자

세한대 등 11곳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교육부, 불법체류 문제 등 대응 어학연수과정 13곳도 1년간 제한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등 국내 대학 11곳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오는 2학기부터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인증대학은 대학 121개교, 전문대학 22개교, 대학원대학 15개교 등 학위과정 158개교다. 어학연수과정도 대학 91개교, 전문대학 11개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 총 10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혜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대학 중에서도 3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불법체류율 2% 미만, 어학능력 기준 50% 이상 등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 대학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초청장학생(GKS) 수혜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받는다.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美 하버드대서 강연

한국의 교육개혁 주제 26일 진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과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선다.

미국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 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임 교육감은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경기공교육플랫폼 소개와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약 2시간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강의 원고는 임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고 퇴

고 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한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4일,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도 내 학교 방문 일정에 참가한 후 임 교육감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미래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교육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와 같은 경기교육의 모습을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면서 임 교육감에게 특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고대 교직원, 박물관에 유물 700여점 기증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교직원이 고려대 박물관에 유물 700점 이상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정가는 약 1억7000만원이다.

익명의 고려대 교직원이 기부한 유물에는 집안에서 보관 중이던 간찰집 6집을 포함해 고서, 한국 근현대화,

반닫이 및 병풍 등의 민속품이 포함돼 있다.

익명의 고려대 교직원은 "집에서 대대로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인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박물관에 기

증하게 됐다"라며 "해당 자료가 고려대 도서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의 연구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증해 주신 유물이 기부자의 뜻처럼 의미 있게 활용돼 고려대 박물관이 계속해서 대학 박물관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25일(화) 음력 : 1월 28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7:09, 해질 18:22

지역별 날씨: 연천 -5/7, 동두천 -5/7, 가평 -7/7, 파주 -6/7, 서울 -2/7, 양평 -5/8, 수원 -1/7, 용인 -1/7, 평택 -4/9, 인천 0/6, 백령도 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관세 피하려면 中에 관세 때려라...미국, 멕시코 압박”
▲동성결혼 샘 올트먼 오픈AI CEO, 특남...“이런 사랑 처음” /사진 뉴스1

▲엔비디아, 증시 판 흔들까...오는 26일 실적 발표
▲독일 총선 집권당 심판...중도보수 대승·극우당 주류입성

▲일·필리핀 국방장관 회담...방산 수출 고위급 협의체 신설
▲미시바 내각 지지율 40%대 회복...미일회담 평가는 엇갈려



신세계인터
패션·뷰티 강화로
실적반등 노린다
니



Life

CJ올리브영
K뷰티 게이트웨이
구축
L2



청소년 꿈 키우고, 교육환경 개선... 밝은 미래로 “웰컴!”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웰컴금융그룹이 예신저축은행과 서일상호저축은행을 차례대로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디지털금융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비대면개좌개설 기능인 ‘디지털지점’ 앱을 출시했다. 이후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 ‘웰컴봇’ 등을 출시하면서 지난 2022년 모바일앱 다운로드 300만을 돌파했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영이념은 5가지다. 그중에는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화합한다’ ▲‘고객·주주·사회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생각과 행동은 항상 시장과 고객을 중심으로 한다’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사람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2년 연속 에코어워드 ESG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 방정환 장학생, 15년째 모집

웰컴금융그룹과 웰컴저축은행은 매년 ‘방정환 장학생’을 모집한다. 방정환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

방정환장학금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원은 임직원이 매달 적립한 기부금에 회사가 기부금을 더한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6000여명의 장학생에게 9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고객 및 고객 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경비 또는 학비를 위한 장학금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후원한다.

지원대상에 따라 ▲꿈이룸 장학금(가형) ▲꿈이룸 장학금(나형) 등으로 구성했다. 꿈이룸 장학금(가형)은 중·고교생 및 대학생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어 꿈이룸 장학금(나형)은 성적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다.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은 “우수한 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인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과 지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장학생 선발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실용적인 금융교육 제공

웰컴저축은행은 매년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금융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1사1교 교육뿐 아니라 수능이 끝나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꼭 맞는 금융지식을 공유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1 고광대 웰컴복지재단 이사장(뒷줄 네번째)이 중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이 제 27기 방정환장학금 증서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3 충북 영동군 황간고등학교에서 웰컴저축은행이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2011년부터 ‘방정환 장학생’ 모집 매칭그랜트 방식, 총 6000명 지원 어려운 환경서 꿈 키우는 학생 도와

금융문해력 높이는 1사1교 금융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교육환경 지원

지역아동센터 소프트웨어 활용 도움 소상공인 금융지원, 어르신 세무교육도

지난해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인천주안 초등학교에 방문했다. 예림디자인고교에서는 3학년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펼쳤다. 교육내용은 ▲자산 및 재무관리 기초 개념 안내 ▲근로계약서 제대로 알아보기 ▲신용관리 개념 이해 및 올바른 신용관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예방법 등으로 꾸렸다. 실효성과 경각심을 모두 잡았다.

인천주안초에서는 5학년 학생 140여명에게 ‘똑똑한 용돈관리’를 주제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초등학교생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용돈 관리방법과 저축 습관 기르기 등 실천 가능한 금융지식을 전수했다. 학생들이 직접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방문한 학교도 있다. 충북 영동군에 있는 황간고등학교다.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에서는 예비사회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개인 신용 관리 및 불법 금융에 관한 주의사항 등 금융 재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재무상식을 마련했다.

김한나 웰컴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 팀장은 “2023년 1사1교 금융교육” 우수회사 시상식에서 저축은행중앙회대상상을 수상했다. 1사1교 금융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 팀장은 금융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지원했다.

김 팀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과 교직원분들께 감사하고, 뜻깊은 1사1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회사에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와 소상공인 후원

올해 웰컴복지재단은 중구 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중구 9호점에 ▲생활용품 및 교구 ▲창의체험활동 등 놀이 지도 ▲자기주도학습·진로 교육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후원한다.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내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28곳에 소프트웨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지원했다. 아동 280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교육은 ▲소프트웨어 윤리 ▲코딩 ▲피지컬 컴퓨팅 ▲도트매트릭스 ▲네오보드 등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아 총 6주에 걸쳐 진행했다. 인터넷과 디지털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서천군 수산물특화시장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면서, 서천 지역의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보유 중인 만기대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적용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경로당에 방문해 환경개선 활동 및 이불 청소를 돕고 ‘어르신 세무교육’을 펼쳤다. 총 7차례에 걸친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봉사 참여를 독려했다.

봉사에 참여한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경로당 대청소에 참여했는데, 깨끗해진 경로당을 보며 어르신들이 기뻐하셔서 뿌듯했다”며 “작은 나눔과 봉사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결승 한일전’ 성사되나 U-20 아시안컵 4강팀 대격돌 /사진 뉴스사
▲‘K리그1 우승 후보’ 울산·서울, 자존심 회복... 대항마·라이벌 격파

▲‘대타 출전’ 김혜성, 시범경기 첫 안타...중견수로 수비 가담
▲버틀러 영입 후 매서운 NBA 골든스테이트...6경기서 5승

▲데미 무어, 美배우조합 여우주연상...살라메는 남우주연상
▲손흥민, 입스위치전 활약 찬사 “비판하던 오히려 침묵하게 해